

“전남에 권한 이양·예산 확대...인구 정책 실효성 높여야”

전남연구원,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남 인구정책 활성화 방안 제시 일·가정 양립정책 지원대상 확대 등 세밀한 지역 맞춤 정책 필요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 권한을 전남으로 위임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인구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전 연령층을 고려한 인구정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 바 있다.

전남연구원은 5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인구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바라보는 2050 전남 인구대 전환 종합계획'을 발간,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전남의 인구종합계획을 분석하고, 국경 기초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전남은 2024년을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8월 13일 저출생 대응을 위한 2050 인구대 전환 종합계획(이하 전남 인구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전 연령층의 정주여건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임신, 출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제 분야를 다룸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맘 편한 전남형 시간제보육 운영', '초등자녀 돌봄 탄력근무장려금', '전남도-시군 출생기초수당(학령기까지 매월 출생수당 20만원 지

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쑥쑥키움 쫄쫄맘 유아놀이터 운영 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전남은 지방소멸 위기 심각성을 고려한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추진력 있는 인구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의 지원대상을 소규모 기업 재직자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남의 대표적 청년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만원주택과 출생기초수당 제도 등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 김현민·최지혜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체계적 기반을 다져 나가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며, “전남 모든 연령층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추진 시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법제화를 위한 ‘인구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가칭)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연구진은 “전남은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 인구종합계획 실행을 지원함과 더불어 지역사회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주민 일상에 맞는 세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출산·양육의 국가책임 대폭 강화 및 폭넓은 지자체 재량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캐스퍼EV 구매하면 최대 867만원 할인

광주시, 특·광역시 중 최대 지원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M)가 생산하는 ‘캐스퍼 전기차(EV)’를 구입하는 광주시민에게 1인당 최대 867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민은 전기차 보조금 817만원(정부 지원금 520만원, 광주시 지원금 297만원)과 별도의 취득세 5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특히 취득세 추가지원은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인 ‘캐스퍼 전기차(EV)’의 초기 판매를 촉진하고, 안정적 생산 토대를 이뤘 지역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마련됐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현재 소형차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7%에서 최대 140만원을 공제하고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캐스퍼 전기차(EV) 취득세 추가 지원은 부과액 5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캐스퍼 전기차(EV) 함축형(인스퍼레이션) 모델 기본사양은 대당 3150만원으로, 광주시 전기차 보조금과 취득세를 지원받으면 광주시민들은 캐스퍼 전기차(EV)를 2000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다.

취득세 지원 대상은 캐스퍼 전기차(EV)를 신규 구매·등록해 광주시내 취득세를 납부한 광주시민과 법인이다.

이번 취득세 지원은 캐스퍼 전기차(EV)의 생산 초기 구매 촉진을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으로 온라인 접수순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주시 바로예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뷰 맛집’ 전남서 가을 드라이브 즐기세요

전남도, 거금해안도로·섬진강변·조금나루·흑산도 일주도로 추천



곡성 섬진강변.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가을을 맞아 경관이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고흥 거금해안도로, 곡성 섬진강변, 무안 조금나루해안일주도로, 신안 흑산도 일주도로를 9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고흥 거금해안도로(호남해안로드 13코스)는 국토교통부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에 선정됐다. 다도해 풍경이 아름답다. 거금대교를 지나 억금해변과 오천항 쪽으로 달리다 보면 오른쪽으로 그림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바이크와 자전거 동호회의 필수 여행지로 소문난 곳이다.

거금대교는 자동차 도로(위층 구간), 자전거와 도보 도로(아래층 구간)로 나뉘어 안전하게 거금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솔솔로 바삭하게 구운 생선구이, 녹동향 장어요리 등 산지 재료로 만든 맛깔난 음식이 일품이다.

곡성 섬진강변은 자전거도로, 17번 국도, 중기기관 열차, 섬진강 둘레길까지 4개의 길을 이용할 때 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 중 하나로 은어를 비롯해 30여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다. 주변 식당에서 은어회와 은어구이, 잡계를 곁들인 민물매운탕을 맛볼 수 있다.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는 송림숲과 어우러진 갯벌과 바닷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풍광 명소다. 망운면 조금나루 해변에서 시작해 현경면 봉오제까지 10.75km에 이른다. 구간마다 만남의 길, 자연 행복의 길, 노을길, 느리게 걷는 길, 4개 산책로가 조성돼 드라이브를 즐기다 잠시 차에서 내려 해지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 여행지다.

신안 흑산도 해안일주도로는 섬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다. 자가용으로 드라이브를 즐긴다면 신안 송공항에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다면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해상왕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왕성하게 펼쳤던 상라봉 정상 전망대에 올라 흑산도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유배문화공원, 새조각공원 등을 둘러보며 흑산도의 역사와 문화, 자연의 정취도 느껴볼 수 있다.

전남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체험상품을 평가 대비 50% 할인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1 블루투어 특별행사’를 추진 중이다. 행사는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을 통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맑은 공기 마시며 살고 싶어요”

푸른하늘의 날을 이틀 앞둔 5일 오후 광주 북구청 기후환경과 직원들과 북구청어린이집 아이들이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공회전 제한, 전기차 충전시 안전 수칙 안내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푸른하늘의 날은 유엔 지정 기념일로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첫 유엔 공식 기념일이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개관 1주년 ‘호남권통일+센터’ 기념 행사 다채

내일 평화통일 체험·미술공연 등

전남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관한 통일종합플랫폼 ‘호남권통일+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7일 오전 10시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개관 1주년 문화행사는 ▲평화통일 체험부스 운영 ▲북한 일상 및 이산가족 사진전 ▲미술공연 ▲퓨전국악 음악회 ▲태권도 공연 등 도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호남권 통일+센터는 통일·북한 전문도서관인 통일정보자료실과 7개 전시·체험 콘텐츠를 갖춘 전시

체험관, 다목적 체험실, 교육장 등으로 이뤄졌다. 주요 운영 사업은 가족 단위 주말 특별체험 프로그램 ‘행복을 더하고 다함께 즐기는 원데이클래스’, 북한이탈주민 강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통일이 무르익는 쿠킹클래스’ 등이다.

김성훈 호남권통일+센터장은 “개관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센터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보여준 도민께 보답하기 위해 이번 개관 1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라남도대표축제
영광불갑산

전국 최대 상사화 군락지에서 즐기는 주요 프로그램

- 상사화 소원의 길
- 상사화 산사 음악회
- 상사화 꽃길걷기
- 상사화 대학가요제
-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 상사화 세계 문화 퍼레이드
- 상사화 달빛야(夜)행

불갑산
제24회 영광 상사화 축제

2024. 9. 13.(금) ~ 9. 22.(일) 영광 불갑사 관광지 일원

영광군청 영광군의회 영광군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광진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최현규

주최/주관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전남도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주주 신협중앙회 동명축제